

광산구 '색다른 관광도시' 본능 깨운다

오토캠핑장·양궁체험장 등
매력 넘치는 관광 인프라 확충
'광산다운 콘텐츠' 개발 속도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이 들어선 광주시 광산구 지산저수지 일대 전경.

광주 광산구가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앞세워 다양한 매력이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한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지산동에 위치한 광산구 대표 관광지인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토캠핑장은 2021년 문을 연 이후 숨 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비좁은 진출입로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광산구는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핑장 내 안전 펜스를 비롯한 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캠핑 이상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아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공모 선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오감재생 지산캠핑페스티벌'이다. 8-12월 중 개최 예정으로, 산과 숲, 물 등 생태자연과 교감하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늘막 운동회, 트래킹, 슬기로운 캠핑 교실, 불명 콘서트, 반딧불 사진관 등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오토캠핑장이 뜨면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한 지산저수지도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수지 일대를 자연친화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

들어 캠핑장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야생화 군락지, 조경수 식재를 비롯한 데크 산책로, 포토존,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르면 6월까지 착공한다.

스포츠 체험을 바탕으로 한 관광 활성화도 시도한다.

기보배, 최미선에 이어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안산까지 세계적인 양궁 스타를 잇따라 배출한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장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양궁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궁을 스포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조만간 광주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체험장은 실내 양궁체험 교육 및 훈련 공간, 사전 교육 프로그램 시청 공간, 체험 교실, 10-30m 야외 양궁체험 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광산구는 광주시가 비슷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양궁스타 포토존'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월봉서원,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옥 등 오랜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지역문화재 활용도 다각화한다. 특히 월봉서원은 문화재청의 2022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통해 확장 가상 세계에 월봉서원을 구현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실감 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문화재 향유 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첫 도심 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는 정부, 광주시와 협력해 생태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생태녹색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여기에 이색 맛집이 즐비한 1913송정역시장, 역사문화탐방 '핫플'로 떠오른 광주 고려인마을, 도심 속 비대면 문화향유 공간인 별밤 미술관 등 기존의 풍부한 자원까지 더해 광산구는 보고, 듣고, 즐기고, 맛보고, 머무는 '오감만족'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한 번 찾으면 계속 오고 싶은 광산구가 되도록 다양한 매력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시설이나 화려한 볼거리에 의지하지 않는 도시 관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김삼호 광산구청장 민선 7기 구정 성과와 과제 담아 책 출간

민선 8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7기 주요 정책 성과와 과제를 담은 책을 펴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대한민국 자치혁신'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총 4부로 이뤄진 책은 '행복', '협업', '혁신'을 키워드로 추진했던 민선 7기 공약과 마음가짐을 비롯한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특화전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나와 우리의 삶이 행복한 광산구'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취임 초부터 '경제구정장'을 피력하며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경제과와 골목상권활성화팀 등을 신설해 경제정책에 비중을 둔 이유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광산경제혁신회의를 구성·운영한 과정, '경제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1% 희망대출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골목대장'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발로 뛰었던 지난 여정과 환경, 주민자치, 안전, 행복 등 협업 및 데이터를 토대로 추진한 집단지성형 자치행정 사례를 기술하고, 지방분권시대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창출하고자 시도했던 다양한 사례 등도 담았다.

더불어 지난 4년에 걸쳐 완성한 광산형 복지사업 '늘행복 프로젝트',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줄이기 위해 1호 결재로 시작해 건강의 영역



까지 확장한 시민참여형 '안전광산 프로젝트' 등 중앙부처와 외부기관이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정책의 뒷이야기도 실렸다.

김 청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이 컸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민선 7기 광산구정에 쏟아 부으면서 보람과 아쉬움을 느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했기에 지방정치를 고민하는 이들과 꼭 공유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저자 사인회와 토크 콘서트로 구성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경제, 행복 등 민선 7기 주요 정책에 참여했던 '장사의 신' 저자 김유진, 광산경제혁신회의를 이끈 하상용 광주장조경제혁신센터장, 행복정책 김갑지로 활약한 이지훈 (사)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투명페트병 전용배출봉투 배부

광주·전남최초...101만여 매 제작

광주 광산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국 시행에 맞춰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전용배출봉투(사신)를 제작하고 주택과 상가 등에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택·상가지역에서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는 시민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천을 돕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배출봉투를 만들어 배부하는 시범사업에 나선 것이다.

주택용 20 l와 상가용 30 l를 각각 15매씩 총 101만 2000매를 제작해 지난 14일부터 주택·상가

등 6만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를 시작한다. 받지 못한 세대는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봉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부를 옥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제작된 전용 봉투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도 그려져 있다.

시민은 안내문을 참고해 투명페트병을 봉투에 모아 해당 지역 재활용품 수거 요일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단 맥주병, 막걸리병 등 유색페트병과 포장용 컵, 투명 포장용기 등 일반 플라스틱은 함께 담으면 안 된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오염 없이 분리 배출하면 고품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광산구는 앞서 투명페트병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SK케미칼, 두산

투명(무색)페트병 전용봉투(30ℓ)



이엔티, 신홍자원, 현대환경 등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친환경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원 인력들이 광산구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에게 문진표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다.

광산구-공군 제1전비 코로나 방역 '연대'

오미크론 확산 속 인력 20명 지원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제1전비)이 광산구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제1전비 군 간부 20명의 자원봉사 인력은 지난 10일부터 광산구 선별진료소에 배치되어 개인 자카기트 검사, 전자 문진표 작성법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상태를 파악

하고,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까지 손을 보며 고 있다.

덕분에 최근 하루 3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힘겨워하던 방역 현장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업무과중으로 직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1전비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